

2024년 11월 1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코스피 영향력

한국 증시는 1) 엔비디아 실적, 2) 시카고 연은 등 연준 인사들 발언, 3)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제조업 PMI, 4) 지난주 급락 이후 반도체 중심의 저가매수세 유입 여부, 5) 달러/원 환율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바닥 확인 작업에 나설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360~2,500pt)

금주에도 금리, 환율 등 매크로 가격 지표들의 움직임은 중요하지만, 21일(목)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메인 이벤트가 될 것. 이번 실적 발표에서 1) 70%대 중후반을 넘어왔던 매출총이익 비율(GPM)이 얼마나 둔화될지(2분기 GPM 75.7%), 2) 4분기 가이던스, 3) 향후 AI 업황에 대한 젠스황 CEO의 코멘트 등이 관전 포인트.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및 수급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 및 저가 매리트가 다분히 높아진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의 매도를 통한 현금 확보 전략은 차순위로 미뤄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지속, 원달러 환율 1,400원선 상회,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겹악재에 노출됨에 따라 양 지수는 급락세로 마감 (KOSPI -5.63%, KOSDAQ -7.8%)

주 초반 국내 증시는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 실망감, 일부 종목의 유상증자 악재 등을 반영하며 급락세 시현.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주식 시장이 유독 소외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트럼프 랠리가 집중되는 가상자산, 미국 주식시장 등으로 이탈되며 수급 공백 현상 또한 지속됨.

이후에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대규모 매도세, 원달러 환율 1,400원선 상회, 주요 기업 실적 쇼크 등이 낙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 경신. 12개월 후행 PBR 기준 코스피 PBR은 0.8 5배까지 밀리며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수준(0.87배)까지 급락. 업종별로 살펴보아도 조선, 우주항공 등 트럼프 테마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전방위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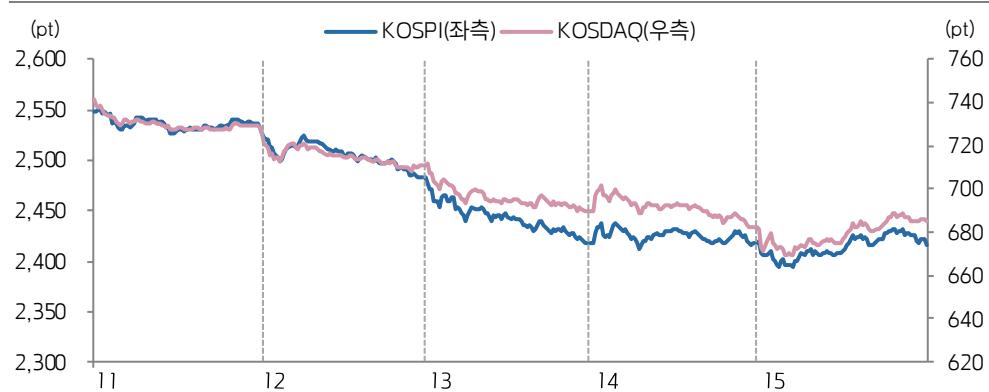
한편, 미국의 10월 CPI는 전년대비 헤드라인, 코어 모두 각각 2.6%, 3.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치를 기록.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지만 대체로 여타 항목들은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에 그치며 시장에 중립 수준의 재료로 작용.

이후 트럼프 정권인수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국내 2차전지주들의 낙폭 확대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 다만, 2차전지 업종의 악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낙폭과대 인식 속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낙폭을 일부 회복.

업종별로 운수장비(+1.3%), 운수창고(+0.96%), 전기가스업(+0.84%), 통신업(+0.14%), 건설업(-2.29%) 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금속(-11.07%), 화학(-10.22%), 석유의복(-8.35%), 의약품(-7.92%), 전기전자(-7.82%) 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7,133억원)은 서비스업(+4,302억원), 운수장비(+1,286억원), 운수창고(+541억원), 통신업(+402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819억원)은 서비스업(+1,849억원), 기계(+512억원), 전기가스업(+341억원), 운수창고(+106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1월 18일	월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1 월	42.0	43.0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			
11월 19일	화	유로존	경상수지	9 월	-	31.5B
			근원 CPI (YoY)	10 월	-	2.7%
			근원 CPI (MoM)	10 월	-	0.2%
			CPI (YoY)	10 월	-	2.0%
			CPI (MoM)	10 월	-	-0.1%
		미국	건축허가건수 (MoM)	10 월	1.2%	-3.1%
			주택착공건수 (MoM)	10 월	-1.2%	-0.5%
		실적	월마트			
11월 20일	수	한국	PPI (MoM)	10 월	-	-0.2%
			PPI (YoY)	10 월	-	1.0%
		독일	PPI (MoM)	10 월	-	-0.5%
			PPI (YoY)	10 월	-	-1.4%
		실적	TJX, 타겟			
11월 21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전망	11 월	5.0	10.3
			기존주택판매	10 월	3.88M	3.84M
			기존주택판매 (MoM)	10 월	1.0%	-1.0%
			선행지수 (MoM)	10 월	-0.3%	-0.5%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1 월	-	-12.5
		실적	엔비디아			
		발언	클리블랜드, 시카고 연은 총재			
11월 22일	금	독일	GDP (QoQ)	3 분기	-	0.2%
			GDP (YoY)	3 분기	-	-0.2%
			제조업 PMI	11 월	-	43
			서비스 PMI	11 월	-	51.6
		유로존	제조업 PMI	11 월	-	46
			마킷 종합 PMI	11 월	-	50
			서비스 PMI	11 월	-	51.6
		미국	제조업 PMI	11 월	-	48.5
			마킷 종합 PMI	11 월	-	54.1
			서비스 PMI	11 월	-	55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11 월	-	2.6%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11 월	-	3.1%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	11 월	-	78.5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1 월	-	73.0
		실적	인튜이트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엔비디아 실적, 2) 시카고 연은 등 연준 인사들 발언, 3)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제조업 PMI, 4) 지난주 급락 이후 반도체 중심의 저가매수세 유입 여부, 5) 달러/원 환율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바닥 확인 작업에 나설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360~2,500pt).

15일(금)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10월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 호조 속 연준 인사들의 보수적인 발언, 트럼프 2기 인선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마감(다우 -0.7%, S&P500 -1.3%, 나스닥 -2.2%).

이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매판매는 +0.4%(MoM, 컨센 +0.3%)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9월 수치(+0.4%→+0.8%)도 큰 폭 상향조정 되는 등 소비 경기의 견조함을 시장에 재확인시켜준 모습. 10월 산업생산(-0.3%MoM, 컨센 -0.3%)도 양호했으며, 11월 뉴욕 제조업 지수(31.2pt, 컨센 -0.3pt)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 같은 지표 호조는 지난주 파월 의장의 “미국 경제가 금리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음. 그 여파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4%대의 높은 레벨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성장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하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

그렇지만 Fed Watch 상 여전히 인하 확률이 61%대로 우위에 있으며, 11월 제조업 PMI, 월마트, 타겟 실적 등과 같이 이번 주 주중 예정된 이벤트를 치르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후퇴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 최근 금리 상승에는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불확실성이 일시에 반영된 영향이 있기는 함. 다만, 현시점부터는 트럼프 2기 윤곽을 확인해 가면서 유불리를 가늠하는 구간에 돌입할 것이기에,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부정적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

이번주도 금리, 환율 등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21일(목)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메인 이벤트가 될 것. 우선 10월 MS, 아마존 등 주요 고객사들의 CAPAX 확대 발표 소식을 접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다시 한번 높아진 상태. 이번 실적 발표에서 1) 70%대 중후반을 넘어왔던 매출총이익 비율(GPM)이 얼마나 둔화될지(2분기 GPM 75.7%), 2) 4분기 가이던스, 3) 향후 AI 업황에 대한 전손황 CEO의 코멘트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테슬라에 수급이 쓸리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전세계 대장주 역할은 엔비디아가 수행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차주까지도 국내외 반도체, AI 주 주가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및 수급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임. 지난 금요일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7%대 폭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과거 3개월 간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위에 있는 상황(7월 11일~11월 15일까지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은 18조원으로 역대 2위). 이에 더해 금요일 장 마감 후 10조원 자사주 매입(3조원은 3개월 이내에 전량 소각)이라는 주주환원계획을 발표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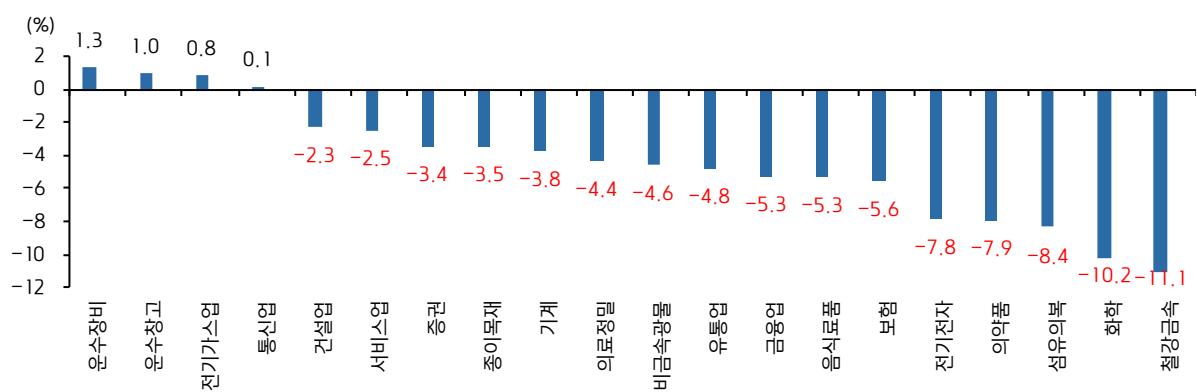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월요일 장 개시 직 후에는 금요일 나스닥 2% 급락의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중에도 엔비디아 실적 등 미국발 상황 변화에 종속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 및 저가 매리트가 다분히 높아진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의 매도를 통한 현금 확보 전략은 차순위로 미뤄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416.86	-0.1	-5.6	-8.2	-9.0
대형주	2,407.14	-0.1	-5.7	-8.5	-9.2
중형주	2,691.27	-0.4	-5.1	-7.0	-3.4
소형주	2,077.01	0.6	-5.0	-7.0	-9.2
코스피 200	320.53	0.9	-5.7	-8.7	-10.5
코스닥	685.42	0.6	-7.8	-11.4	-20.9
대형주	1,671.01	0.5	-7.8	-11.3	-17.7
중형주	583.29	0.7	-8.5	-11.5	-18.4
소형주	2,201.92	0.8	-6.7	-10.5	-21.6
코스닥 150	1,189.53	0.6	-6.9	-9.4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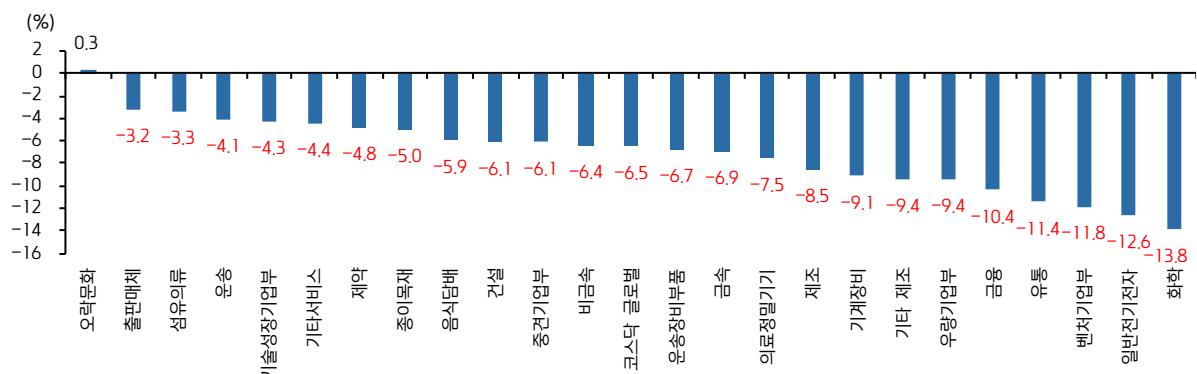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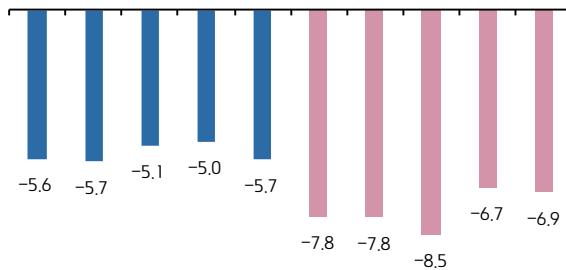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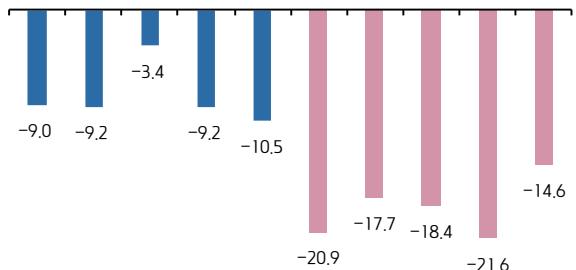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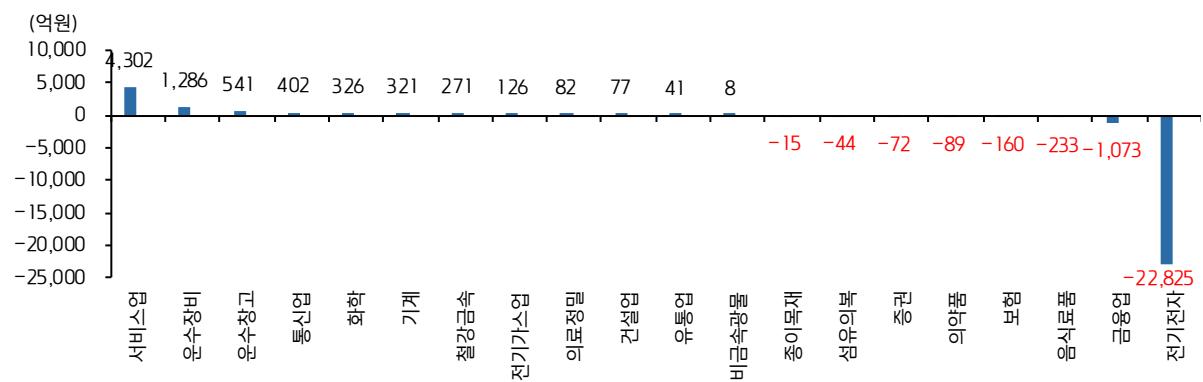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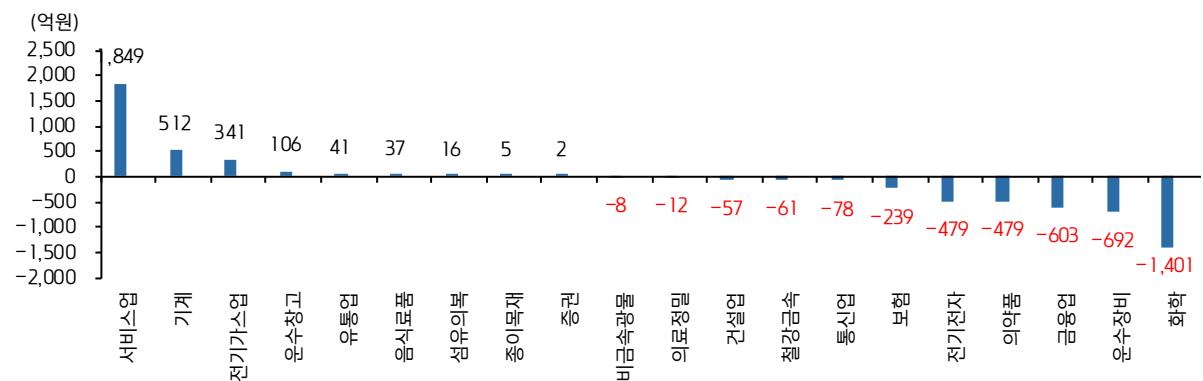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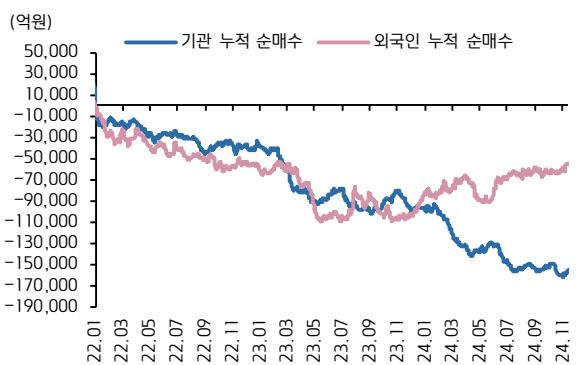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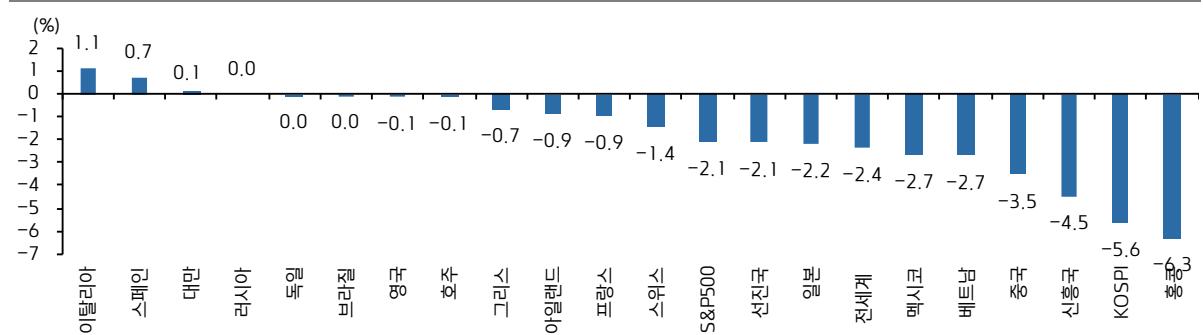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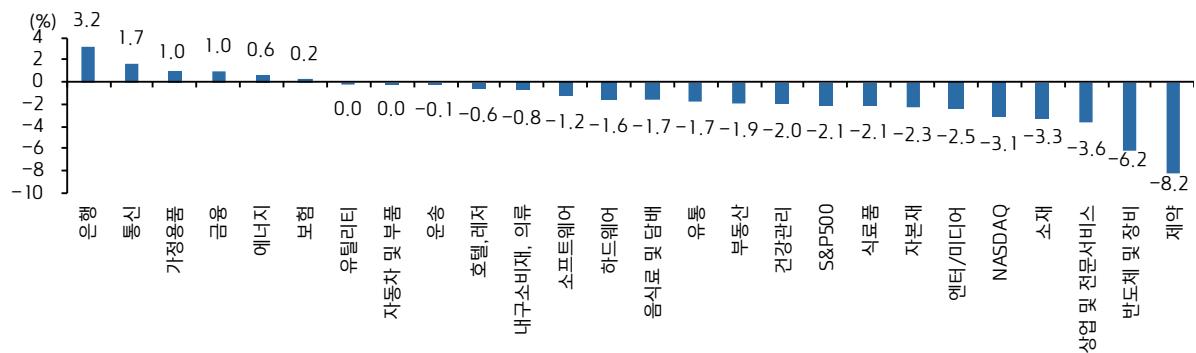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